



### CEO 출입기자 간담회 실시



지난 2월10일 SK 에너지, SK종합화학, SK루브리컨츠의 사장단이 SK 서린사옥 35층에서 출입기자 간담회를 가졌다. 독자경영체제 시행 이후 처음으로 열

린 CEO 출입기자 간담회는 출입기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구자영 사장의 스피치와 질의응답 순서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구자영 사장은 가장 먼저 SK이노베이션을 소개하고 동석한 SK에너지 박봉균 사장과 SK종합화학 차화엽 사장, SK루브리컨츠 최관호 사장, 김동섭 글로벌테크놀로지 총괄, 이기화 E&P사업부 문장 등을 소개하며, 2015년까지 각각 1조원의 영업이익의 달성의 목표를 밝혔다.

또한, SK이노베이션의 비전은 기술을 선도하는 글로벌 에너지 컴퍼니라고 소개하며, 비즈니스모델과 테크놀로지, 컬처의 이노베이션을 통해 새롭게 변화하고 있고, 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5년 후, 10년 후의 영업이익에 관한 비전도 밝혔다.

### SK이노베이션, Mercedes-AMG의 전기 슈퍼카 잡았다

SK이노베이션이 다임러그룹 Mercedes-Benz의 최고급 사양 첫 전기 슈퍼카 모델인 SLS AMG E-CELL의 리튬이온 배터리 공급업체로 공식 선정됐다고 지난 2월10일 밝혔다. 이번에 SK이노베이션이 공급하게 될 리튬이온 배터리가 적용되는 SLS AMG E-CELL은 다임러 그룹이 2011년 디트로이트 모터쇼를 통해 공개한 Gull-Wing 타입의 최첨단 전기 슈퍼카 모델이다. 차량 개발에 있어 최고 기술력을 자랑하는 다임러와의 전략적 기술 협력과 제품 공급을 통해 SK이노베이션의 전기자동차 배터리 기술력을 천 세계에 입증하는 계기가 되었다.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세계 최고의 자동차 기술력을 가진 Mercedes-Benz 중에서도 가장 성능이 뛰어난 차량으로 인정받고 있는 SLS AMG의 전기차 모델 E-CELL의 배터리 공급업체로 선정되어 SK이노베이션은 전략적 기술협약과 제품공급을 통해 전기차 배터리의 기술 경쟁력을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았을 뿐 아니라 유럽 시장 공략 및 글로벌 자동차 업체 추가 확보에 청신호가 켜졌다"고 밝혔다.

### 세계 최초 촉매 이용 나프타 분해 공장 가동

SK에너지가 세계 최초로 촉매를 이용한 나프타 분해 공장을 완공하고, 최근 시험 가동을 개시했다.

SK에너지는 지난 2008년 자체 기술로 촉매를 이용하여 화학제품의 원료인 나프타를 분해하는 일명 "ACO 공정기술"(Advanced Catalytic Olefin, 촉매를 이용한 나프타 분해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에 성공, 기존의 열분해 공정보다 에너지 비용 및 이산화탄소 배출을 20% 감소시킬 수 있는 新개념의 화학공장을 가동하게 된 것이다.

SK에너지 관계자는 "6년여에 걸친 ACO기술 개발에 이어, 이번 新개념의 화학공장 완공으로 석유화학 산업 분야에 새 길이 열렸다"며 "ACO 기술을 통해 대한민국이 석유화학 분야의 기술 종속국에서 선도국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애경유화와 전기차 배터리 소재 국산화 박차

SK에너지가 LIBS(2차전지분리막)에 이어 애경유화와 손잡고 음극소재 개발에 나서는 등 전기차용 배터리 핵심소재 국산화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배터리 소재 분야 大-中企 상생협력 모델 구축에 나섰다.

SK에너지는 지난 2010년 12월13일 대전시 유성구 애경유화 중앙연구소에서 김동섭 SK에너지 기술원장과 김정곤 애경유화 연구소장 등 양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기차용 배터리 음극소재 분야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앞으로 SK에너지는 애경유화에서 개발 중인 음극소재를 전기차용 배터리에 적용해 상용화 테스트를 진행하는 등



양사간 공동 연구 체계를 구축해 전기차용 배터리의 핵심 소재인 음극소재의 국산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SK에너지 관계자는 "애경유화가 개발 중인 음극소재(하드카본)를 적용한 전기차용 배터리 성능 테스트 결과가 수입산 소재를 사용한 경우와 비교해 동등 이상으로 나타나, 앞으로 양사가 개발에 협력할 경우 음극소재 상업화에 자신한다"며, "전기차용 배터리 소재의 수입 의존도를 크게 낮추는 물론 배터리의 원가경쟁력 제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 고속도로 휴게소가 문화시설로 탈바꿈



SK에너지 컨소시엄이 한국도로공사의 민간투자사업인 복합 문화시설 사업자에 선정됐다. SK에너지는 지난 2010년 12월 24일 한국도로공사에서 최윤희 한국도로공사 사업본부장, 송진수 공항석유 대표, 차규탁 SK에너지 내트력사업부장 등 관계자 50여명이 등이 참석한 가운데 마장분기점 복합문화 시설 사업자 선정 체결식을 맺었다고 밝혔다.

총 322억원이 투자되는 이 사업은 한국도로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민간투자사업의 일환으로 중부 및 제2 중부고속도로의 마장분기점 2만 7천평 부지에 기존의 고속도로 휴게소

기능을 탈피한 복합문화시설을 짓는 사업이다.

SK에너지 컨소시엄에는 공항석유 외에도 풀무원, 파리크라상 등이 참여 중이며, 컨소시엄이 복합문화시설을 25년간 운영한 후 이를 도로공사에 기부채납하게 된다.

### ■ 광구 포트폴리오 재편으로 전략적 석유개발 모델 만든다

SK에너지가 보유광구 포트폴리오 재편을 통한 전략적 석유 개발사업 운영에 나선다.

SK에너지는 지난 2010년 12월 23일 서린동 SK본사에서 열린 이사회에서 석유개발 브라질 법인(SK do Brasil Ltda.)이 보유한 주식 전량을 덴마크 Maersk Oil(머스크 오일)사에 24억달러에 매각하는 안건을 의결했다고 23일 발표했다. 동 매각은 브라질 정부의 승인을 득한 후 확정될 예정이다.

SK에너지 구자영 사장은 "지금까지 축적해 온 자원개발 사업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한 한단계 도약을 이뤄나갈 시기"라며 "투자자금 확보와 광구 보유 재편 성으로 효율적인 석유개발 사업을 이끌어 나갈으로써 정부 정책과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국내 에너지 자주확보에 기여할 수 있는 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 SK이노베이션, 투명경영대상 수상

SK이노베이션이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5단체가 공동 주관하는 투명경영대상을 수상했다. 지난 2월 16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시상식에 구자영 사장이 참석해, 직접 수상했다.

투명경영대상은 경제5단체가 공동으로 주관해, 기업경영의 투명성과 노사관계 안정성, 그리고 사회적 책임, 환경경영 등의 분야에서 우수한 기업을 평가해 수여하는 상으로 올해 7회를 맞는다.

이사회 중심 경영을 통한 기업지배구조 혁신, 투명한 회계처리 및 충실한 재무공시를 통한 공정한 회계 시스템 정착, 신뢰와 화합을 바탕으로 한 협력적 노사관계, 행복경영 원칙에 기반한 사회 구성원들과의 쌍방향 사회 공헌, 그리고 친환경 녹색경영 등의 부분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이다.

## ■ GS칼텍스 시무식, 2011년도 Bridge To The Future!



GS칼텍스는 지난 1월 3일 오전 11시 30분, 강남구 역삼동 GS타워에서 허동수 회장과 임직원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1년 시무식 행사를 갖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구하고 나가기 위한 각오를 다졌다.

이날 시무식에서 허동수 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2010년을 되돌아보면서 "지난 해 GS칼텍스는 VRHCR을 성공적으로 상업 가동하고, 기존 주력사업의 경쟁력 강화와 함께 2차 전지 소재, 박막전지 등 신 성장 사업 분야에서도 가시적인 성과를 이뤄냈다"고 평가했다. 허동수 회장은 올해의 경영목표를 "지난 해에 이어 'Bridge to the Future'의 기초를 유지하며, 업계 최고의 경쟁력과 수익성 확보, 신 사업의 성공적 사업화 및 추가성장 동력발굴, 창의적 사고와 실행력 중심의 조직역량 구축 이라는 세가지 실행과제들을 중심으로 경영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 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시무식에서는 2011년 하반기 신입사원들이 입문연수기간 중 틈틈이 준비한 공연을 선보였다. GS칼텍스가 시무식에서 신입사원들의 이색 공연을 선보인 것은 올해로 벌써 7년째이며, 지난 2005년부터 시작한 신입사원들의 공연은 해를 거듭하면서 점차 GS칼텍스 시무식의 전통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 ■ '음극제' 양산으로 이차전지 사업 본격화

GS칼텍스가 리튬이차전지 핵심소재인 음극제 차입을 본격화 한다. GS칼텍스 허동수 회장은 지난 2월 28일, 도쿄에서 일본 최대 에너지 기업인 JX NOE(구, 신일본석유)사의 키무라 야스시(Kimura Yasushi)사장 등과 함께 리튬이차전지의 핵심소재인 음극제 사업에 대한 합작계약을 체결하였다. 양사는 이번 체결을 통해 올해 연말까지 연산 2,000톤 규모의 음극제 공장을 경북 구미 산업단지에서 건설하기로 합의한다. GS칼텍스는 내년부터 본격적인 양산

에 들어갈 예정이며,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전기자동차와 신재생에너지 저장시스템 등의 시장상황을 고려하여 연산 4,000톤 규모 이상으로 확대하여 지속적으로 시장을 선도해 나갈 계획이다.

## ■ 제4 중질유분해시설 건설로 친환경 녹색성장 선도

GS칼텍스가 지난 해 12월 제3-고도화시설인 감압잔사유 수첨탈황 분해시설 (VRHCR : Vacuum Residue Hydrocraker)을 완공하고 운전 가동한데 이어 제4 중질유분해시설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GS칼텍스는 총조1천억원의 투자를 하여, 1일 5만 3천배럴 규모의 감압 가스오일 유동상 촉매 분해시설(VGO FCC) 등 제4 중질유분해시설을 건설하기로 최종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투자하는 제4 중질유분해시설은 VGO FCC와 1일 2만4천배럴 규모의 휘발유 탈황시설(Gasoline HDS) 및 친환경 고급휘발유 제조시설인 알킬레이션 생산공정으로 구성된다.

GS칼텍스 허동수회장은 지속적인 고도화 설비투자에 대해 "고도화 설비는 Green Growth 사업이며, 유행을 비롯한 환경에 유해한 성분들이 많은 중질유를 친환경 경질유로 생산하는 것은 그 자체가 녹색성장"이라고 강조하면서, "Green Growth는 장기적이고 지속적이어야 성과가 가시화되는 것으로, 지금은 비록 비용이 들더라도 이를 비용으로 볼게 아니라 성장잠재력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 ■ 2010 하반기 경영현황설명회 및 간담회 개최

GS칼텍스는 지난 2010년 12월 9일 GS타워 이비리움홀에서 2010 하반기 경영현황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경영현황설명회에서는, 경영기획실장 겸영국 상무가 GS칼텍스 경영실적과 정유업계 현황, 회사의 전략 등에 대해 임직원들에게 자세히 설명하였다.

허동수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VRHCR이 무사히 프로젝트를 마치고 100% 풀가동에 들어갔다"라며 "조금 더 과감하고 적극적인 발상의 전환으로 우리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자"라고 덧붙였다. 이후 허동수 회장은 임직원들



과 간담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으며 회사의 경영목표를 명확히 했다.

한편, 여수공장 본관 대강당에서도 허동수 회장을 비롯해 임직원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영현황설명회 및 간담회가 개최되었다.

### ■ 국립공원 생태체험 업무협약 체결

GS칼텍스는 지난 2010년 12월 21일 코엑스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허동수 회장을 비롯해 이만희 환경부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환경부 및 국립공원관리공단과 공동으로 국립공원 생태체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GS칼텍스는 2011년부터 2012년까지 2년간 본 사회공헌사업에 총 4억 원을 후원하며,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저소득 가정 및 다문화가정 등 소외계층 아동과 그 가족들을 위한 국립공원 생태체험 프로그램, 환경성 질환 아동들을 위한 국립공원 숲 치유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게 된다.

허동수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사회공헌사업을 통해 어려운 환경에 놓인 어린이들이 건강한 환경의식을 가진 미래세대로 자라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하고, 아울러 사회 구성원들의 녹색환경 의식 고취와 자연환경 보전이 더욱 심화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 제12회 대한민국 브랜드 대상 '국무총리상' 수상

GS칼텍스는 지난 2010년 11월 24일 밀레니엄 힐튼 호텔에서 개최된 '제12회 대한민국 브랜드 대상'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GS칼텍스의 브랜드 아이덴티티 시스템을 통한 I am your Energy 캠페인의 집행 및 확장 과 체계적 브랜드 관리를 높이 평가받았다. 이와 함께 GS칼텍스의 브랜드 전략을 Case로 발표하는 시간을 갖고 국내 브

랜드 전문가들에게 GS칼텍스의 브랜드를 알리는 계기를 마련했다.

### ■ 제15기 GS칼텍스배 프로그래밍 시상식 참석



허동수 회장은 지난 2010년 12월 20일 매일경제신문사 미디어센터에서 진행된 제15기 GS칼텍스배 프로그래밍 시상식에 참석했다.

이번 시상식에는 허동수 회장을 비롯해 매일경제신문, 매일경제TV의 장대한 회장이 참석해 우승과 준우승을 거둔 원성진 9단과 조한승 9단을 축하했다.

우승한 원성진 9단에게는 5,000만 원의 우승상금과 상패가, 준우승한 조한승 9단에게는 1,200만 원의 준우승 상금과 상패가 각각 수여됐다.

## ■ “S-OIL 과학문화재단” 설립, 과학인재 양성 지원



S-OIL은 순수과학 분야의 우수 인재양성과 학술연구 지원을 위해 ‘재단법인 에스-오일 과학문화재단’을 설립했다.

S-OIL은 지난 1월 31일 아흐메드 에이 수베이 CEO와 오명 재단이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여의도 63빌딩에 자리잡은 재단 사무실에서 헌판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S-OIL 과학문화재단’은 국내 대학 이공계 분야 대학(원)생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제공하고, 연구기관의 학술논문 및 연구프로젝트를 지원한다. 또한 해외 우수 학술기관들과의 교류를 추진하고, 중동 지역과의 문화 교류 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써 학문적 소통과 글로벌 네트워크 형성 기반을 다지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S-OIL은 ‘과학문화재단’에 올해 2억원의 출연키로 했으며,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매년 일정액을 출연한다고 밝혔다. 초대 이사장에는 오명 KAIST 이사장을 선임했고, 이사 4명과 감사 2명을 위촉했다.

S-OIL 아흐메드 에이 수베이 CEO는 “S-OIL은 기업 이윤의 사회적 환원 차원에서 학술연구 지원 및 장학사업을 통하여 차세대 우리 사회의 주역이 될 우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과학문화재단을 설립했다”고 밝히고 “국내에서 노벨과학상 수상자가 나오도록 지속적으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 ■ 신년산행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 결의

S-OIL은 아흐메드 에이 수베이 CEO를 비롯한 임직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월 29일 서울 청계산에서 새해 등반 행사를 갖고 더욱 존경받는 글로벌 기업으로의 도약과 지속성장을 위한 결의를 다졌다. 임직원들은 청계산 정상에서 “우리는 하나다. 다 함께 이루자” 이라는 구호를 제창하며 기업가치 증대에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수베이 CEO는 “올해 S-OIL은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지난 3년 간 1조 4천억원을 투자하여 추진해온 온산공장 증설 프로젝트 건설 공사를 완료하여 본격 가동하고, 처음으로 본사 사옥을 완공해 입주하는 등 지속가능성을 한층 배가시킬 든든한 기반을 갖추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인적자원의 가치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커뮤니케이션과 인력개발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대한민국에서 가장 신바람나게 일하는 최고의 직장’을 만들고, 진정성을 바탕으로 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마음 따뜻한 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여 한 단계 더 도약하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행사에는 사회 첫발을 내딛은 올해 신입사원 40명도 함께 참가하여 선배들과 유익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 ■ 공정안전관리(PSM) 최고등급 획득

S-OIL이 공정안전관리(Process Safety Management, 이하 PSM)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P등급)을 획득했다. PSM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중대 산업 사고 예방을 위해 2001년부터 추진한 안전관리 보고 제도다. 화재·폭발 등 위험관리를 요하는 900여 업체가 PSM 아래 4년마다 공정안전관리 이행상태를 평가받는다. S-OIL은 2008년 11월 온산공장의 정기평가를 시행한 데 이어 지난해에 자발적으로 재평가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지난 12월 9~10일 점검을 시행했으며 12월 29일에 최고등급 평가를 통보받았다. PSM 대상 가운데 P등급을 받은 사업장은 울산지역 총 123개 업체 중 18개에 불과하며, 전국적으로는 약 13% 수준이다.

## ■ 영등포 쪽방촌에서 '사랑의 떡국 나누기'

S-OIL은 설날을 맞아 지난 1월 27일 서울시 영등포 공야고 회 노숙자 무료 급식센터에서 'S-OIL과 함께하는 사랑의 떡국 나누기' 자원봉사 활동을 펼쳤다.

이날 행사에는 아흐메드 에이 수베이 CEO를 비롯한 S-OIL 사회봉사단, 퇴직 임원 등 100여 명이 참여하여 쪽방촌 거주민과 노숙자 등 500여 명에게 직접 떡국을 끓여 나누어 주었다. 또한 영등포역 일대 쪽방 600 세대에 가래떡, 쇠고기, 약과, 라면 등 식료품을 담은 설 선물 꾸러미를 전달했다.

수베이 CEO는 "어려운 이웃들이 한국 전통명절인 설날에 외로움을 느끼지 않도록 임직원들의 작은 정성을 모아 이번 봉사활동을 준비했다."며 "경제난 속에서 어느 때보다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는 이웃들이 따뜻한 사랑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전국 사업장별로 조직된 임직원 사회봉사단을 통해 이웃과 함께하는 나눔 경영을 적극 실천하고 있는 S-OIL은 해마다 '사랑의 떡국 송편나누기', 저소득 노인 대상 경로잔치, 난치병 어린이들을 위한 '희망나눔캠프' 등 직접적이고 다양한 자원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수석부사장] △류열 CFO, 재무B/L Head

[부사장] △이병호 인재개발실장 △안종범 경영기획실장

[상무] △신성도 자금부문 담당 △류경표 감사 담당 △김용연  
노사협력 및 조직문화부문 담당 △서강돈 인사부문 담당

## ■ S-OIL 마케팅 공모전 접수 완료

S-OIL은 마케팅 공모전인 '2011 S-OIL 브랜드 어워드'를 개최하여 지난 2월 14일 공모 접수를 마감하고 2월 22일에 1차 예선 결과를 발표했다.

국내 거주 대학생·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한 이번 공모전은 광고, 프로모션·이벤트, 미래주유소 모습 등 세 분야로 나눠 1월 3일부터 2월 13일까지 응모작을 받았으며, 최종 700여 팀이 작품 접수를 완료해 높은 관심도를 기록했다. 1·2차 심사를 통과한 10팀이 결선 진출의 기회를 얻게 되며, 3월 11~18일 진행되는 프레젠테이션 심사로 최종 수상자를 가린다.

마케팅 활동 전반에 대한 소비자 욕구 파악과 신선한 아이디어 발굴 및 소비자 참여 마케팅 강화를 목표로 실시한 마케팅 공모전은 응모분야 수상자에게 상금·상패와 더불어 입사 시 우대혜택을 부여한다.

## ■ S-OIL, 임원 승진 인사



류열 수석부사장

안종범 부사장

이병호 부사장

S-OIL은 지난 2월 15일 류열 CFO를 수석부사장으로 승진 발령하는 등 총 7명의 임원 승진 인사를 단행했다.

류 열 수석부사장은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美 Case Western Reserve University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1982년 입사한 뒤 국내영업본부장 등을 거쳐 2009년부터 CFO 겸 재무B/L Head를 역임하고 있다.

## ■ 휘발유·경유 환경품질 4회 연속 최고등급 획득

환경부가 2010년 하반기 실시한 자동차연료 환경품질등급 평가에서 S-OIL이 휘발유와 경유가 동시에 최고 등급(★5개, 국제 최고규격 수준)을 획득했다. 이로써 S-OIL은 국내 정유사 중 유일하게 4회 연속으로 휘발유·경유 모두 최고 등급을 획득하는 기록을 세웠다.

자동차연료 환경품질등급제는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 특별법' 제29조에 따라 수도권 지역에 공급되는 자동차연료를 대상으로 지난 2006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다. 환경부가 반기마다 각 정유사의 저유소·주유소로부터 시료를 채취하고 한국석유관리원의 시험분석을 통해 등급을 평가한다.

## ■ 현대오일뱅크, 2011년 K리그 메인 타이틀 스폰서 선정



현대오일뱅크가 프로축구 연맹과 손잡고 2011년 K리그 타이틀 스폰서로 나섰다.

현대오일뱅크 권오갑 사장은 지난 2월 22일 서울 종로구 신문로축구회관에서 정몽

규 프로축구연맹 총재와 안기현 사무총장이 참석한 가운데 타이틀 스폰서 후원 조인식을 가졌다. 이에 따라 2011년 K리그 대회 명칭은 '현대오일뱅크 K리그 2011(Hyundai Oilbank K-LEAGUE 2011)'로 정해졌다. 또한 K리그의 A보드 광고권 90도 시스템 광고권 경기장 내외 프로모션권 등 다양한 광고, 홍보권을 확보하게 됐다.

이 날 후원조인식에서는 '현대오일뱅크 K리그 2011'의 공식 엠블럼도 공개됐다. '에너지와 인간의 조화'를 기본 컨셉트로 하는 엠블럼은 현대오일뱅크의 C에 곡선이 가미된 파란 테두리로 '팬'과 함께 '축구'로 하나가 되겠다는 염원을 담았다. 또한 K리그가 현대오일뱅크와 함께 세계 최고로 나아가길 바란다는 의미를 더했다.

이날 권오갑 사장은 "올 시즌 올산 현대의 스폰서에 만족하지 않고 좀 더 시너지를 내기 위해 K리그 타이틀 스폰서에 참여하게 됐다"며 "현대오일뱅크는 앞으로도 회사에 보탬이 되는 활발한 스포츠 마케팅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 상해, 두바이 지사 신설

현대오일뱅크가 지난 1월 1일부로 중국 상해지사와 중동 두바이 지사를 신설하고 해외 시장 개척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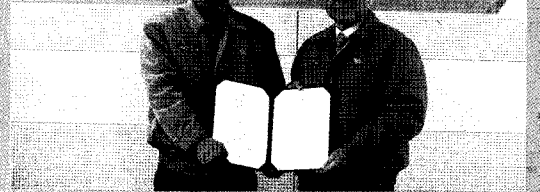
현대오일뱅크는 이번 해외 지사 설립으로 올해 상반기 #2 HOU의 상업가동 후 생산량이 늘어날 경질유 제품인 수출산 확보에 주력할 방침이다. 중설이 완공되면 현대오일뱅크는 하루 최대 12만 배럴의 경질유 생산 능력을 갖추게 되며, 고부가가치 상품의 수출을 통해 영업이익이 상당히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현대오일뱅크는 이미 전세계 시장에 진출해 있는 현대중공업, 현대중합상사와의 시너지를 통해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향후 지속적으로 해외지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 ■ 2011년 임금위임 및 무파업 선언식 개최

### 임금 위임 및 무파업 선언식

2011년 1월 12일 (수)



현대오일뱅크 노사가 새해 들어 산업계에서 처음으로 임금위임 및 무파업을 선언했다.

지난 1월 12일 현대오일뱅크 서울사무소에서 권오갑 사장, 김태경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1 임금위임 및 무파업 선언식'을 개최하고, 2011년 임금협상을 회사측에 일괄 위임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함께 현대오일뱅크 노동조합은 조합원 전원을 '필수유지인원'으로 하는 '필수유지업무 협정서'도 사측에 제출했다. 필수유지인원은 전 조합원이 생산설비 가동 및 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필수 인원이므로 파업을 하지 않겠다는 무파업 선언을 의미한다.

이날 선언식에서 노조는 임금인상을 회사에 위임하고, 회사는 종업원의 고용안정에 힘쓰기로 했으며,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회사의 경쟁력 강화, 선도적 노사관계 정책,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현대오일뱅크 노동조합이 회사에 임금위임을 결정한 것은 1988년 노조 창립 이후 처음 있는 일이며, 현대중공업 인수 후 첫째 노조가 임금위임을 결정함으로써 향후 협력적 노사관계의 틀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 영업본부, 강원 폭설 피해지역 재설봉사

현대오일뱅크 영업본부 임직원 75명은 최근 폭설로 피해가 많은 강원도 강릉지역을 방문해 재설작업과 함께 긴급 복구 활동을 도왔다.

현대오일뱅크 영업본부장을 비롯한 서울사무소 직원 60명과 영동지사 15명은 지난 2월 19일 주말도 반납한 채 강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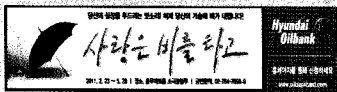


도 강릉시 옥계면 산계리를 방문해 폭설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120여 명의 마을 주민을 위로했다.

봉사단은 미리 준비한 삽과 옥계농협에서 지원해준 제설용 중장비를 이용해 마을에 산처럼 쌓여있는 눈을 치우고 무너진 비닐하우스 잔해를 제거하는 등 복구작업에 구슬땀을 흘렸다. 교박 5시간 동안 마을 주민과 봉사단이 힘을 합쳐 진행된 복구 작업으로 무너진 시설물들이 제 모습을 갖추고 차량이 다닐 수 있는 길이 뚫리자, 주민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봉사단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이 날 봉사활동을 진두 지휘한 김병섭 영업본부장은 "하루 빨리 제설 작업이 완료돼 더 이상의 폭설 피해가 없길 기원한다"며 "앞으로도 강원도 지역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다각도의 봉사활동을 계획해 가장 먼저 달려올 것"이라고 밝혔다.

## ■ 보너스카드고객 50쌍 뮤지컬 초대



현대오일뱅크가 보너스카드 고객 50쌍을 뮤지컬 '사랑은 비를 타고' 공연에 초대한다.

'사랑은 비를 타고' 공연에 초대한다. '사랑은 비를 타고'는 17년 동안 꾸준히 인기를 얻고 있는 최정수 창작 뮤지컬로 최근 일본 공연을 성황리에 끝내 국내 창작 뮤지컬의 위상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이번 공연은 한국 뮤지컬대상 음악작품상을 수상한 최귀섭 씨가 음악을 담당하며 따뜻한 가족애와 가슴 시린 성장통의 이야기를 담겨 된다. 이번 공연은 충무아트홀에서 2월 23일부터 5월 29일까지 총 113회 열릴 예정이다.

관람을 원하는 고객은 2월 22일부터 3월 26일까지 현대오일뱅크 보너스카드 홈페이지([www.oilbankcard.com](http://www.oilbankcard.com))에서 응모하면 된다. 현대오일뱅크는 3월 31일 온라인 응모 고객 중 50쌍을 추

첨해 공연 무료 초대권(인 2매)을 선물한다. 또한 현대오일뱅크는 보너스카드 고객 모두에게 공연 입장료의 40%를 할인해주는 혜택도 함께 제공한다.

## ■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 축하합니다"

현대오일뱅크 권오갑 사장이 지난 2월 15일 초등학교 입학 축하를 앞두고 있는 113명의 임직원 가정에 특별 입학선물을 전달했다. 이번 입학선물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캐릭터로 구성된 학용품 문구세트와,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부터 1학년이 될 때까지 학부모가 해줘야 할 일들을 소개한 부모지침도서다. 권오갑 사장은 선물과 함께 임직원 가정으로 보낸 편지에서 "새로운 세상으로 한걸음 나아가는 자녀들의 입학 축하를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자녀들이 더욱 훌륭히 성장해 나라의 주역이 되길 바란다"고 축하와 격려의 말을 건넸다.

## ■ 1년에 한번 추억의 월급봉투가 부활한다

현대오일뱅크가 지난 12월 30일 대산본사와 서울사무소를 비롯한 전국 사업장 1천 8백여 명의 임직원들에게 추억 속의 월급봉투를 전달했다. '추억의 월급봉투'는 연말을 맞아 과거 재생지로 만든 월급봉투를 받았을 때의 설렘과 기쁨을 직원들에게 전달하고 가장으로서 사기도 올려주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20여 년 만에 부활한 월급봉투 안에는 5만원권 지폐와 함께 현대오일뱅크 권오갑 사장이 직접 작성한 편지가 있었다. 직원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권 사장은 "과거 우리 부모 세대들이 그러셨듯, 퇴근 길 어깨 으쓱한 마음으로 들어가셔서 가족들과 즐겁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라며 월급봉투 전달의 의미를 담았다. 현대오일뱅크 임직원들의 반응은 신선하면서도 왠지 따뜻한 정이 느껴진다는 분위기다. 20여 년 만에 월급봉투를 받았다는 한 부장은 "월급이 은행 계좌로 자동이체 되면서 월급날을 기다리는 설렘과 기대가 사라졌는데, 막상 월급봉투를 다시 받아보니 집으로 향하는 마음이 나도 모르게 든든해진다"고 밝혔다.

한편 현대오일뱅크는 앞으로 매년 연말에 월급을 자동이체가 아닌 월급봉투에 담아 지급할 방침이다.